

2020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특집** 한국교회 생존양식

영적갈망을 잊은 교회여

그들이 떠나고 있다

한국교회 생존양식

주요 장로교단총회에 대한 기윤실 논평

# 목차

## 특집

### “한국교회 생존양식”

영적갈망을 잊은 교회여(장동민) .....	3
그들이 떠나고 있다(조성돈) .....	6
한국교회 생존양식(옥성득) .....	10
주요 장로교단총회에 대한 기윤실 논평 .....	13

## 더 높은 책무성

[자발적불편운동] 더불어 살아가는 - 책임있는 그리스도인 .....	14
[좋은사회운동] <온라인대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과제는 무엇인가? .....	16
[청년센터 WAY] <사람책방> 오픈했어요 .....	19
[청년센터 WAY] <사람책방> 월간책장 “요즘 청년의 비거니즘” 후기 .....	20
[청년센터 WAY] <WAY레터> 청년에게 가는 길, 청년이 걷는 길 .....	21
[연대·협력] <세반연논평> 이것이 명성교회 돈과 권력의 힘이다. ....	22

## 더 깊은 투명성

7-9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	23
------------------------	----

##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활동계획 / 활동스케치(전광훈긴급좌담회/성서한국활동가) .....	26
전국기윤실협의회 현황 / 주소록 .....	27
종교 없는 삶 .....	28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정병오(이의용(부이사장) 강석창 권장희 권혁률 김경수 김양재 김정태 김종구 김홍섭 박제우 박종근 방선기 배종석 송인수 송태근 왕보현 유해신 이문식 임성빈 장동민 정현구 조수진 조주희 조홍식 주광순 지용근 최규창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강영안 확장배 김경섭 라영환 손인웅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전재중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바른가치운동본부장) 박선영(청년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이재민(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덕 김성경(상집위원) 자발적불편운동 김희경 박정우 박제우(기획위원) 교회신뢰운동-좋은나무 노종문(편집주관) 강영안 권수경 성영은 손화철 송용원 옥성득 박미낭(편집위원) 좋은사회운동 설성호(부채해방운동 팀장) 김병규(공명선거운동 팀장) 김정태(윤리적투자운동 위원) 정종욱(낙태죄헌법불합치후속활동 팀장) 김진우(섬이있는교육 팀장) 청년운동 구자창 김민영 백종원 신근범 우미연 이용호 조혜진 최진호(위원) 청년센터WAY 박선영(센터장) 김성경 김현아 신근범 조혜진 최진호(운영위원) 최주리(간사)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곽은진 김성경(공동소장) 안혜용 이송학 이수인 최정희 박선영 김현아(운영위원) 최주리(간사)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재민(공동위원장)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사무처 김현아(팀장) 문형욱 윤신일 최주리 최진호(간사)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정읍 진주 청주 / (준비지역) 김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4분기호 통권 277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20. 11. 10  
 편집인 정병오 편집 최진호 디자인 송아현

보고기간 2020년 7월 29일~2020년 11월 10일 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크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글\_장동민 이사  
(기윤실,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 영적 갈망을 잇은 교회여

전광훈에게는 확실히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다. 직설적 화법, 소탈한 성격, 강력한 카리스마, 돈과 성(性)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청교도적’ 도덕성,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반공주의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려 하고 있으니 이를 저지하는 것이 애국적 기독교인의 의무라는 것이다.

전광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원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닌 많은 성도들이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8.15 광복절 집회와 더불어 코로나 재확산의 주원인이 된 바로 그 집회 말이다. 그들로 하여금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던 교회를 박차고 멀리까지 가서 위험한 집회에 참석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동시에 그에게로 밀어내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 그들은 단지 선동가에게 속아 휘둘린 어리석은 맹신자들인가? 그들의 열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그 열심의 중심에 영적 갈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80줄 들어가는 한 권사님이 있다. 그는 젊었을 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였고, 진실한 목사님을 만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재물과 시간을 바쳐 교회를 섬겼다. 유복하지 못했던 삶 속에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었다. 그 권사님은 가끔 나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젊었을 적 신앙을 회고하며, 지금의 교회 생활은 미지근하고 지루할 뿐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불평한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영적 갈망을 '전광훈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채운다면서, 청와대 앞 집회에도 몇 번 참석하였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는 거기서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이게 그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영적 갈망!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적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었다. 주일 설교는 윤리적 교훈, 자기계발의 방법, 적극적 사고방식, 복 받는 비결, 출처가 불분명한 예화, 자랑 섞인 간증, 양비론적 정치인 비판 등, 들어두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밋밋한 중립적 언어로 채워져 있다. 일 년에 두어 번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설교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구원에 관한 설명일 뿐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설교 후 손을 반쯤 들고 거룩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모양이다.

목회자들 자신이 영적인 갈망을 별반 가지고 있지 않은 듯싶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 출석 성도들의 숫자와 헌금 액수, 영향력 있는 장로·권사와의 식사, 기독교 방송 출연과 유튜브 조회 수, 노회·총회 임원과 해외 선교지 방문, 은퇴 후의 대책 등이다. 성도들이

영적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오래 된 습관, 가족의 전통, 사회적 교류와 눈도장, 봉사활동, 별 받을까 무서워서, 직분에 대한 책임감 등 영적 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도 많다.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전광훈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전광훈 사태를 통하여 내가 새삼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영적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영적 갈망을 가져야 한다.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 물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일찍이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른 신학(혹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기도, 말씀묵상, 시련이다. 이것들은 한국교회가 그 동안 너무나도 잘 해왔던 것이라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루터의 해설을 들으면 바로 이 점이 한국교회의 실패근본 원인이라는 알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에게 '기도(oratio)'는 자기 자신의 분별력과 이성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하고 골방에 들어가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신의 지성과 경험이 오류와 죄악으로 물들었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묵상(meditatio)'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여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말씀을 "쫓개어" 그 말씀의 조각을 이리저리 붙여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이 방망이처럼 다가와 나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인 것이다.

'시련(tentatio, 독일어 Anfechtung)'은 '고난', '시험', '유혹', '번민' 등으로 번역될 수 있

는 단어다.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하여 시험을 당해야 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의 말씀과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한다는 뜻도 될 것이다. 혹은 그 반대의 방향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나 번민이다. 예를 들어보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기사가 죽어나가고, 월세 낼 돈이 없어 가게를 접고,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이 방황하는데, 한쪽에서는 상속세 10조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모습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사회적 차이를 초월한 보편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교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중산층 사교 클럽으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번민이 일어난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이웃에게 선(善)을 행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와 가짜 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것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안팎의 물음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기도와 말씀묵상과 시련은 삼각형의 세 꼭짓점이다. 각각이 모두 영적 갈망을 일으킨다. 나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서,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목마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셋이 결합되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다. 나

의 심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의 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현실을 보면서 절망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나에게 없고, 사실은 나 자신이 세상에 고통을 더하는 원인제공자일 뿐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Kyrie eleison)

전광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서 그에 대하여 분노와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매장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갈망을 느끼고 이를 채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소그룹 활동, 교양강좌, 독서토론, 경도대학, 바자회, 비전트립, 사회봉사, 교회 건축 등으로서는 안 된다. 교회가 진리의 물 근원을 찾아 길을 헤매는 나그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시험을 당하자. 신학자들이 이미 정립된 교리를 전하는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번민과 유혹으로 가득한 십자가 신학에 도전하자.

물을 찾지 못하여 헐떡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작은 샘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빛을 받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닌 그분을 믿는 것이다. “솔라 피데!”(sola fide)<sup>1)</sup>



# 그들이 떠나고 있다!



글\_조성돈 상집위원(기윤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3년 전, 중형 교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대략 교인 수 500~1,000명 사이의 교회를 중형 교회라고 보는데,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 교회들을 조사한 것은 이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중형 교회들마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살펴보니 그래도 안정적인 줄 알았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겉으로 볼 때는 규모도 있고 역사도 있고, 안정된 평신도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이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어려움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 이런 교회들이 리더십 문제와 노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고,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무너져 가고 있었다.

그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교회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몇몇 교회에서 40대 초반 이하로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40대 중반까지는 있는데, 40대 초반

부터는 교회 출석률도 떨어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어떻게 이렇게 꼭 집어서 연령대를 정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들의 이야기이니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40대 초반이라면 사회에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2000년대로 넘어올 때 청소년이었거나 청년들이었다. 그 당시 X-세대라고 불렀던 이들이다.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학교 교육을 받았고, 소위 이해찬 세대, 즉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고 공부가 아니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꿈을 준 세대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문화 충격을 겪었고, 학교를 벗어나라는 '교실 이데아'에 열광했던 이들이다. 인터넷이 널리 이용되면서 사이버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스마트폰이 나타난 이후에는 급속한 사회변화를 직접 겪은 이들이다.

X-세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들의 특성을 알 수 없어서였다. 무어라 특징지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는 의미로 X-세대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이후에는 더 알 수 없는 세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X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을 붙여 Y-세대라고 했다. 이들은 80년대와 90년대에 출생한 이들이다. Y-세대까지는 보통 밀레니얼 세대로 분류한다. 그리고 2천 년대에 들어와서 출생한 이들은 더욱 알 수가 없기에 역시 이름 붙이기를 포기하고 Z-세대라고 했다.

지금 중형 교회에서 사라진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로 분류되는 X-세대와 Y-세대이다. 교회에 30대와 40대가 없다는 말은 이들의 자녀인 청소년과 아이들도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 50대 이상 어른들만 자리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한국교회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두가 걱정은 한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위기에 대해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주변에서 만나는 40대나 30대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변하지 않는 교회, 아니 예전의 순수함마저 잃어 버린 교회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었다. 원로 목사의 은퇴 과정에서 시험 드는 일도 많았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며 바라보았던 목사님이 상상하지도 못한 액수를 받고 은퇴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목회 리더십이 바뀌면서 겪게 되는 교회의 분란도 큰 시험이다.

교회의 노령화도 문제다. 30대, 40대면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할 때이다. 기업에서는

40대 중반에 이사로 진급이 안 되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아직 마이크도 잡을 수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당한다. 그것도 어떻게 참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은 어르신들이 정치 이야기로 입장을 지른다. 기도 시간에 정치 선동이 이루어지고, 설교마저 복음을 잃은 지 오래다. 거기에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고 '빨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도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러니 교회에 40대 이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교회 내에 이들의 자리가 없다. 어떻게든 교회에서 버텨 보려고 하지만, 교회 자체의 문제와 이념 문제까지 겹쳐 너무나 괴롭다.

사회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은 심각하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아니 이미 터져버린 폭탄이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그 갈등이 더 증폭되어 있다. 교회라서 폭력은 없을지 몰라도 그 긴장감은 더하다. 대한민국에서 60세 이상의 세대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아니, 아직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긴장을 아직 내재하고 있는 곳 역시 교회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부끄러워한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나오는 교회발 집단 감염 뉴스나, 교회들의 합리적이지 않은 대처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고스란히 받아 삼켜야 하는 이들은, 방역을 정치로 이해하고 예배를 정치의 수단으로 보는 어르신들을 향해 분노를 넘어 냉담을 보인다.

기성세대의 꼬트머리에 있는 나로서는 이들이 신기하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래도 교회에 발을 붙이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신기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분노로 꺾이고, 실망으로 넘어진다. 어려서부터 삶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교회에 출석을 끊고, 교인이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졌던 교회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지만, 감당이 안 되어 떠나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붙잡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들의 분노와 실망을 알기 때문이다.

한때 SNS에 널리 퍼졌던 미국 타임스 스퀘어 교회 카터 켈론 목사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십시오!”(RUN for your Life)라는 설교가 있다. 5분여 길이로 편집된 영상에서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시종 ‘RUN’을 외친다. 생명을 위해서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세요.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치세요.

인종과 문화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세요.

달리세요. 달리세요. 벗어나십시오.

전원을 내리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세요.“

나는 오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싶다. 꺾이고 무너지지 말고 도망치라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누를 범하지 말라고. 공동체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꺾이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조금 알밋더라도 교회를 떠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라고. 너의 믿는 바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일 11시에 매이는 교회 말고 너의 믿음에 동의해 주고 위로를 주는 교회를 만나라고. 그게

차라리 꺾이고 무너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해 주고 싶다.

최근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선택으로 나타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시험 들 일이 없어서 좋다는 거다.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는데 정치 이야기가 들어오고,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이 쏟아져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니 기도는 넘어간단다. 설교 중에도 거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넘어가던지, 다른 설교를 듣는단다. 짧다고도



할 수 없는 40대 후반의 이야기이다.

목사로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답해 줘야 하는가.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버티줘서 고맙다'고 하겠다. 온라인이라도 끈을 붙잡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겠다. 그 강한 공동체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라도 이어가고 있으니 고맙다고 하겠다.

몇 년 전 미션얼 처치 현장을 경험해 보고자 미국 시애틀에 간 적이 있다. 시애틀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도시였고, 그들 말에 의하면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10%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세속화된 도시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다. 인상 깊었던 곳이 몇 곳 있다. 한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방문했는데 예배당 뒤편에 간단한 음식으로 뷔페를 마련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핫도그도 있었고, 과자나 간식거리, 그리고 다양한 음료들이 있었다. 우리도 음식을 챙겨 먹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이 되었다. 주위를 보니 다들 음식을 먹으며 예배를 드린다. 중간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앞에서 동네의 노는 형 같아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성찬 그릇을 들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야구 모자를 썼는데 그가 성찬 위원이었다. 또 다른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의 차림이 심상치가 않았다. 몸에 다양한 문신과 여러 곳에 피어싱이 있었다. 검은 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걸쳤는데 딱 보면 동네 깡패였다. 모이는 사람들도 보니 목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실은 처음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목사가, 교회가, 예배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충격

이었다. 그런데 다른 곳들도 경험해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감이 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사회에서 이미 교회를 떠나 버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은 일부러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주일이 어려우면 토요일에 오라고 했고, 예배가 지루하면 밥을 먹으면서 참여하라고 했고, 부담스러운 옷차림은 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처절함이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예배나 목회의 특별한 재주를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간절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처절함을 보았다.

한국교회는 아직 배부르다. 아직 남은 것이 있고, 지난날의 영화가 남아 있다. 대형 교회의 신화와 꿈이 있고, 이 사회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교만이 있다. 그런데 현장은 무섭다. 무너져 가는 현장은 지난번 폭우에 일어난 산사태 같다.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가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다. 비대면 상황이라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이들이 부평초처럼 떠다니고 있다. 이제 교회가 전면적으로 변해야 한다. 교회 내의 기득권과 헤게모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너진 집에서 우두머리를 해 봐야 내려앉는 서까래를 떠받칠 뿐이다. 이번 코로나 상황이 준 충격에서부터,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한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처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 믿음마저 버리는 이들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방향을 돌려 변화해야 하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예배와 교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sup>11</sup>

#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생존양식 : 서(恕)



글\_옥성득 교수  
(UCLA 한국기독교학)

코로나 이후 시대는 없다.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 가을이 되면 2차 팬데믹의 물결이 물러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일반인에게 보급되려면 최소한 6개월이나 내년 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한국은 방역 성공으로 상대적으로 감염자가 적기 때문에, 면역 항체를 가진 자가 적어서 여전히 확산 위험은 높은 편이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한국 개신교에 필요한 윤리는 무엇일까? 바로 논어에 나오는 서(恕)의 태도가 아닐까. 논어의 본문을 보자.

---

**자공이 공자에게 "한마디 말로 중신토록 행할 만한 게 있습니까?"라고 여쭙었다. 공자께서는 "서(恕)로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셨다.<sup>1)</sup>**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 평생 실천할 덕목이요, 한 글자로 줄이면 ‘서(恕)’가 된다. 서(恕)는 마음(心)을 같이(如) 하는 것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배려의 마음이다. 서(恕)라야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

1)“子貢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勿施於人.” 『論語』, 衛靈公篇.

과거에 개신교인들은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12)라는 ‘황금률’과 비교하며 유교를 과소평가하곤 했다. 즉, 기독교는 적극적인 사랑의 종교요, 유교는 소극적인 체면의 종교라고 평하며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했다. 오해이다.

두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이다. 구약 외경인 『토빗기』 4장 15절은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한다. 탈무드에서 랍비 힐렐은 율법의 요지를 묻는 이방인에게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 전체의 정신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 설명입니다. 가서 그것을 배우시오”라고 대답했다. 이런 유대교 전통을 보더라도, 복음서 황금률을 뒤집으면 그 뒷면에 서(恕, 기소불욕 물시어인)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恕-관용, 용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헤아림의 마음이요, 공감하는 태도로서 예의 핵심이다.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윤리가 바로 예(禮, mutual contractual relationships)이다. 무례하지 않음, 바로 이것이 팬데믹 시대의 윤리이다. 내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헤아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덧글 욕, 뒷담화, 신상 캐기, 가짜 뉴스 생산, 바이러스 전파, 성희롱 등—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부과하려는 태도가 문제가 될 때가 많다.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받고 싶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나에게 복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내 감정, 내 주장, 내 메시지를 강요하지 말자. 그런 배려의 정신이 없을 때,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된다. 화려한 행사, 이벤트, 대형 모임이 없어도 좋다. 가만히 옆에 있어도 편한 교회,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교회, 그리로 가면 아무 피해가 없으리라는 믿음을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시절이다.

코로나 사태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교회’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서(恕)의 교회이다. 팬데믹 시대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적게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인가를 해 주려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를 우선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난과 슬픔의 시대에, 나의 고통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 같은 마음이 되는 것,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자신을 처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서(恕)이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는 유위(有爲)의 종교였다.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위(無爲)의 종교가 되려면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을 때, 필요한 일만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는 과유불급, 지나치게 행동적이며 과시적이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려면 절제의 영을 받아야 한다. 무위(non-doing) 속에서 기도와 성찰로 신자와 교회 됨(being)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될(becoming)지를 묵상할 때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관성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려고 한다. 그 열심을 심분 이해한다. 그러나 어떤 낯선 보균자가 교회에 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려 환자가 늘어나면 그를 싫어하게 되듯이,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를 통해 주변에 환자가 확산되는 폐를 미친다면, 누가 교회를 책임 있는 공동체라고 하겠는가? 이미 예배만 일주일에 여러 번 드리고 있었고, 이제 소그룹 모임도 가능하다고 한다. 필자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너 달째 전혀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크게 불평하는 교회는 없고 신자들도 안전을 우선 가치로 여긴다.

사실, 한국교회는 교회에 가야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약 체질의 성도를 만든 것을 회개해야 한다. 초파일이나 한두 차례 절에 가도 일상에서 불자로 사는 사람이 많은 불교나, 가정교육과 가정 제사로 효와 인과 서의 가치와 정신을 유지한 유교로부터 배울 일이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개신교의 작위적 예배, 말뿐인 설교, 시끄러운 찬양을 원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는 무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때이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도 운행되는 우주의 신비를 깨달아 스스로 신비가 될 때이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변화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신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愆의 삶의 양식을 배울 때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들뜬 꽃과 같이 자연스러운 교회. 한적한 오솔길에 놓여 있는 작은 벤치와 같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 새벽녘 조용한 해변에 부는 바람같이 상쾌한 교회를 그린다. 그런 무위와 침묵 속에 안식하고 평안하되 생명을 충만케 하는 성령의 교회를 만들자. 그림



## 주요 장로교단 총회에 대한 기윤실 논평

교회의 중요 현안과 비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외면한 교단 총회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주간 주요 장로교단의 총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이번 총회는 짧은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1. 우선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이슈가 총회에 올라온 모든 논의들을 삼키고 막아버렸다. 현대 교회에 큰 도전인 동성애 이슈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이 교회의 주요한 지표가 되어 신학대학 총장부터 학생, 그리고 교역자들까지 사상 검증의 잣대가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 이번 총회에서 대부분 교단들의 이단대책위원회는 전광훈 씨를 이단옹호자로, 그리고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보고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임원회 및 정책 총회 등으로 미루어져 아쉬움을 남겼으나, 향후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3. 예정통합 총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던 명성교회 관련 사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12개 노회의 헌의와 1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연서명한 선언은 무시되었다. 임원회에서 차후 다루어진다고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한 교회 문제로 교단이 분열의 위기까지 가는 현 상황에 대해 예정통합 총회는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교회 및 한국 사회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주지해주시기 바란다.
4. 예정합동 총회는 올해도 여성 안수 및 강도권 등에 대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하게 된다.

그나마 올해는 총회장 선거에 대한 잡음이 없고, 임원 선출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 아쉬운 것은 교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절박한 상황의 인식이나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작은 교회에 대한 지원 외에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개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의식 없이 사회적 이슈로 점철된 총회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뿐이다.

총회는 교회의 연장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과 화해를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몸 된 교회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미움과 분노, 그리고 배척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는 상황에서 교회가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을 던진 것 같아 죄송할 뿐이다.

한국 교회는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성경과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반영하고, 겸손한 자성의 태도와 분별있고 상식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의 신뢰와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는 책임있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24일(목)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지난 9월 21일(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9월 22일(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의 교단 총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살아가는 - 책임있는 그리스도인

# 2020년 가을,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글 문형욱 간사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 더불어 살아가는 책임있는 그리스도인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잘 쓰는 것도 끈을 잘라 버리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죠?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3월운동 함께해요!**




밀집, 밀폐, 밀집된 공간, 가지 않기가 어려우시죠? 우리의 불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 '최소포장'!**



최소포장 제품을 찾기도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도 많이 불편하시죠? 창조세계를 향한 책임으로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탄소배출 줄이기!**



택배, 자동차, 고기 소비를 줄이는 것,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의 불편으로 더워지는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만의  
자발적 불편 찾기!

###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고, 조금의 일상을 되찾은지 채 얼마 되지 않은 8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8월 2일 이미 내부확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고, 사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써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된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시하였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 61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거리를 두고 싶은'이 32.2%, '사기꾼 같은'이 29.1%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은 전국기독교실협의회 11곳과 180개 교회가 함께합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함께해주세요!  
주소 서울시 용산구 안국대로 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cemk.org 페이스북 @giyunsil 인스타그램 giyunsil



포스터 신청 / PDF다운

###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앞에선 그리스도인

어느 날 뉴스에서 쓰레기 처리장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사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서

저렇게 산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 하니 어느새 부끄러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쓰레기와 늘어난 택배로 인한 과대포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태풍

이 3차례 연달아 오면서 침수 피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닌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어느 기사의 제목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교회와 기후위기는 이슈 앞에서 이번 주제를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할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 ‘책임있는 그리스도인’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2%, ‘요즘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45%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는 떨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의 위로가 필요함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문제 앞

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하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확산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밀폐·밀집된 곳을 가지 않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웃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앞에 지금, 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자발적불편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의 포장만 되어있는 물건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타지 않고 조금 더 걷고, 고기를 조금 덜 먹고, 플라스틱을 덜 소비하는 것 등, 그것이 우리 삶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써 세상과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웃과 지구를 위한 캠페인 ‘더불어 살아가는-책임있는 그리스도인!’ 함께 동참해주세요~! 그리스도인

### 자발적불편운동, 함께 해주세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함께,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신청교회로 등록해주시면 저희가 캠페인 포스터를 보내드리니 교회에 게시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저희가 제안 드리는 캠페인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겨주세요. 그 외 창의적으로 진행하시는 자발적 불편운동이 있다면 기윤실에 귀띔해주세요. (cemk.org, 070-7019-3755)

<온라인대담>

#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  
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법률 시안을 제출한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논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한  
다는 입장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  
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지난 9월 12일(토),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의 내용과 그 동안 교계에서 제기된 문제  
의식을 촘촘하게 검토해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  
다. 본 소식지에는 법안의 쟁점과 질의응답 대화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 자료실, 대담영상은 기윤실 유튜브(youtube.com/giyunsi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대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과제는 무엇인가

- ▶ 일시 : 2020년 9월 12일(토) 11시~12시 40분
- ▶ 발제 : 차별금지법 약사와 2020년 법안 분석 - 박종운 변호사 (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대 법제정위원장)
- ▶ 진행 : 조성돈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법안 쟁점 비교>

	「차별금지법안」 2020년 장혜영 대표발의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2020년 인권위 의견표명 시안
차별 금지 사유	- 23개 사유 예시적 규정 - 인권위법 19개 차별금지사유 + 언어, 국적,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 2개 사유 예시적 규정 - 인권위법 19개 차별금지사유 +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차별표시 조장광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광고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 없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광고에 대한 정의규정에 따라 정부광고, 옥외광고, 상업광고, 의견광고 포함]
차별예외	<b>공통</b> ①진정(직업)자격, ②잠정적 우대조치 (없음)	③다른 법률의 규정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b>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b>		
고용	<b>공통</b>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훈련, 배치, 승진, 근로조건, 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편의제공 의무 규정 - 근로계약 차별적 부분 무효 및 수정간주 - 노동조합, 직업소개기관 등에서의 차별금지 규	(없음)
교육	-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 - 교육책임자의 의무 규정 - 자격증 취득·교육훈련에서의	
<b>제4장 차별의 구제</b>		
[인권위] 시정권고	<b>공통</b>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는 인권위법 준용	
[인권위] 시정명령	- 요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기간 내에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이의신청, 소제기, 집행정	(없음)
[인권위] 법률구조요청	-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구조	(없음)

<질의응답 주요 내용>

질의응답은 사전에 기윤실 회원들로부터 취합한 질문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 1**

교회학교나 미션스쿨 강의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처벌 받나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이며, 종교 영역 안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죄라고 해서 혐오하고 선동하고 괴롭히는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안에 규범조화적인 해석 및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괴롭힘 (평등법 시안 제2조 7항) : 적대적/위협적/모욕적 환경 조성, 수치심/모욕감/두려움 야기, 멸시/선동/혐오 표현

**질문 2**

목사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회 평등법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조항이 없습니다. '시정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회를 바꿔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손해배상금의 하한을 500만원으로 했는데, 이는 재산상/정신적 위자료 성격으로 다른 법에도 있는 규정입니다.

\*'악의적' (평등법 시안 제34조) : 고의성/반복-지속성/보복성/피해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

**질문 3**

외국에서는 동성애 커플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하여 처벌 받았다고 합니다.

부분적 가짜뉴스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차별로 보지 않고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줘 해당 주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별 대상 영역에 '재화용역' 부분이 있고, 기성 상품은 성소수자, 외국인,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작자의 예술적 감각, 신앙과 관련된 작품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기에 충돌과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항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리면 안됩니다. 걱정이 되는 만큼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4**

동성애와 이단에 대해 성경과 양심에 따라 말한전데 그것을 왜 차별이라 하나요?

교회 내에서는 교리 상 지적할 수 있지만 사회영역과의 접촉 지점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사회생활이나 길거리 전도에서 '동성애자, 신천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상종도 하면 안된다'고 비방하는 것은 '종교/표현의 자유'를 넘어 배척과 혐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선민의식과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해왔던 사회 공공영역에서의 공격적 전도/선교의 방식, 시민들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했던 방식들이 이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통이나 이단이나',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가 아니라 사회에 혐오와 증오가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 5**

신학교나 종교기관에서 타종교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인가요?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기관이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된 재정으로 해당 종교의 교육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신학교가 종합대학이 되고 있고,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정부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종교의 사람만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영역과 공공영역의 혼합)

\*차별예외사유 (평등법 시안 제4조) :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질문 6**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정말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압박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면, 그들 중 누가 개신교 교회와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필요와 교회, 신앙이 충돌하지 않는 법으로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사랑과 포용의 종교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은 가짜뉴스와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분별하고 선택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약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실**



## 기운실 청년센터WAY에서 <사람책방>을 오픈했어요!

글\_김현아 팀장

어서오세요! <사람책방>은 먼저 걸어가 본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 줄 '사람책'과 호기심과 질문 가득한 '청년 독자'를 연결해주는 경험공유공간입니다. 진로직업 정보, 사이드 프로젝트, 타인의 세계 등 다양한 삶의 모양과 채색에 관심있는 청년 독자를 기다립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주고 받는 이야기에 더 큰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책방>은 진로와 일상의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담을 나누어주는 안전하고 유익한 장을 제공합니다. '사람책'의 경험과 지혜, '청년 독자'의 호기심과 질문이 만나면 가치 있는 소통, 삶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사람책방>은,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줄 '사람책'을 발굴하여 그 이야기가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청년 독자'들이 삶의 선택 앞에서 홀로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의 발자취를 실마리 삼아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슬기로운 청년생활을 위한, 평범하고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책방>을 활용하세요! 자유롭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역량, 타인과 새로운 세계를 재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기운실**

<사람책방>프로그램	내용 소개
하나. "일간책장"	(Now open) 다달이 책방 매니저들이 엄선하여 추천하는 테마별 '사람책'을 만나러 오세요! 소규모로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며 사람책방과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갑니다.
둘. "1:1 청년의 서재"	(Coming soon) 궁금하고 막연한 직업과 진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알아보고 싶나요? 여기 <1:1서재>에서 검색해보고, 만나보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의 경험과 지혜를 연결해 드립니다.
셋. 공모전 "내 인생의 글쓴이"	(Coming soon) "야, 너도 책 쓸 수 있어" 당신의 인생이 곧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중 한 페이지를 <사람책방>에 나누어주세요. 어떤 경험, 어떤 생각, 어떤 걸음이든- 쓰고 읽으며 재발견 된 그대의 이야기를 엮어 다른 벗들에게 빌려줄게요.

<사람책방>은 청년들의 일상과 마음에 주목하는 '기운실 청년센터WAY'에서 운영하는 경험역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직통전화 070-7019-3756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way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emk\_way

# 일간책장 : 요즘 청년의 비거니즘 후기

글\_김현아팀장

지난 금요일 밤, 사람책방에 열 명 남짓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로 진행되었던 <사람책방>의 첫 번째 일간책장!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 ▶ 2020년 11월 6일(금) 20시~21시 30분 (zoom)
- ▶ 주제 "요즘 청년의 비거니즘"
- ▶ 사람책
  - 이수지(그린피스 직원) : 저는 짝퉁 페스코테리안입니다.
  - 김다혜(복음과 상황 기자) : '밥'에 대한 고민

'일간책장'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MZ세대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일상, 환경/동물 보호에 관심이 높다고 하죠. 그 실천 중 하나로 '채식'을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어 "비거니즘"을 테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당일이 되었어요! 청년독자들과 화면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소개 후, "요즘 청년의 비거니즘"에 대해 두 분의 '사람책'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님은 3년 전부터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탄소배출, 산림과 농지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파괴 등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물성 음식을 피하는 '채식'은 동물착취로 만들어진 제품을 반대하는 '비거니즘'으로 나아갈 수 있고, '환경 보호'라는 더 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최소 한 끼부터 실천하고, 좋아하지 않는 육류부터 끊어보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자는 꿀팁도 나눠주었습니다.

다혜님은 1년 전, 직장에서 '돼지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취재하고 책을 읽으며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동물윤리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채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당은 거의 모든 음식에 고기가 포함되어 있고, 플라스틱과 비닐로 포장되어있는 식재료들을 보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뀔 수는 없을까? 질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청어람>에서 진행했던 '나의 비건 식당 순례기' 모임이나 에코페미니스트 그룹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고, 다혜님 주변에서도 다혜님의 도전을 보면서 자극 받아 채식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했다는 이야기 도 들려주었어요.

책 '비건 세상 만들기'는 "완벽한 비건보다 어설픈 플렉시테리언이 영향력 있다."고 합니다. 실패하거나 실수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큰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개인 윤리 차원의 시도들이 결국 우리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독자들도 본인의 '비거니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유학 시절 프랑스 친구의 권유로 채식을 시작한 이야기,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보고 꿈에 돼지가 되어 고통을 체험한 뒤 다시는 돼지를 고기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 서브웨이와 롯데리아에 비건 메뉴가 생겨 반가웠다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소수인 채식주의자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 채식 메이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깊은 고민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과 교회 식당에서 육류를 줄이는 것, 한 끼부터 시작하는 것, 가치 지향의 삶을 사는 것, 소소하지만 중요한 적용점들을 나누며 모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 환경운동가가 유난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애쓰는 동지가 있다는 것에 위로와 용기를 얻는 밤이었습니다. <sup>그날</sup>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일간책장'은 새로운 주제로 또 열립니다! '사람책'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당신의 책장을 채워주세요.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식과 비거니즘, 그리고 환경

꿀팁전수

- 비딩부터 크크?
- 채소 한끼, 최소 한끼 (비건레스토랑 가보기!)
- 채식메이트 만들기
- 별로 안좋아하는거 부터 끊기
- 베지테리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계 아니잖아요? 나만의 방법 만들기
- 채식을 넘어서 비거니즘
- 비거니즘을 넘어서 환경
- 자발적 불편의 삶

# 청년에게 가는 길, 청년이 걷는 길

글 최주리 간사

청년에게 가는 길 청년이 걷는 길



기운실청년센터뉴스레터

청년을 위해 일하고 청년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2020년 7월 17일에 출범한 기운실 청년센터WAY는 청년이 걷는 길에 동행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WAY의 지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년센터WAY가 관심 갖고 있는 청년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 청년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청년들의 삶에 보탬이 될 쓸쓸한 소식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10월부터 청년센터WAY의 뉴스레터인 <WAY letter>를 시작했습니다.

WAY letter는 청년센터WAY를 섬기는 기운실 활동가들이 엄선한 알찬 이야기들을 모아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매 호마다 청년센터WAY가 선정한 주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합니다. 지금까지 1호에서는 “청년센터WAY”, 2호에서는 “사람책방”과 “비거니즘”, 3호에서는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과 “청년 부채”, 4호에서는 “청년센터WAY 섬김이들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관심이 많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을 가득 전달해드릴 WAY letter에 많은 관심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별](#)

## <WAY letter>는...

- ✓ 발송일 :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 ✓ 구성

- <WAY ON AIR> : 청년센터WAY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놓치면 아쉬운, 꿀정보> : 청년들의 삶에 보탬이 될 교육, 활동, 지원사업 등의 유용한 맞춤 정보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 <함께 읽어요, WAY Insight> : 청년들을 위해 엄선한 영화, 드라마, 책, 음악, 영상, 아티클, 카드뉴스 등 알찬 읽을거리들을 추천해드립니다.

WAY letter를  
구독해주세요!



지난WAY letter를  
살펴보고 싶다면!



[세반연 논평] 명성교회 불법세습, 총회 임원회와 정치부의 공개적 옹호에 대하여

## 이것이 명성교회 돈과 권력의 힘이다.

불법세습을 감행함으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교단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한국교회 역사에 오점을 남겼으며,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도 탄식과 실망의 대상인 명성교회가 조용히 폭주하고 있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고 결정했음에도 그 정당한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제104회 총회에서는 법도 무시한 수습안을 내놓았고 제105회 총회에서는 온라인 회의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논의를 거부하고 본 회의를 마쳤다. 총회임원회는 정치부 뒤로 숨었고, 정치부는 정치부실행위원 뒤로 숨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절차와 적법이라는 허울에 숨어 세습을 옹호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세습한 명성교회가 오늘까지 버티고, 2021년 1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돌아오려는 시도까지 총회임원회를 비롯한 유력한 총대들의 폭넓은 지지와 옹호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지난 수년간의 모습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언행은 찾을 수 없으며, 명성교회를 두둔한다는 확신이 들고,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명성교회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세습을 준비했다.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고, 노회를 마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재정 비리, 목사의 우상화, 교회의 사유화,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은폐했다.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막는 것은 그들이 감춘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압박과 고립을 견뎌야 하고, 불의한 자들이 확보하는 현실에 강한 환멸을 느낀다.

명성교회를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위협요소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와 그를 변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맘몬이라는 우상에 절하는 자들로 인해 침몰해 가는 한국교회를 방치하는 것이다.

명성교회 불법세습 사태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와 정치부원 그리고 옹호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정의를 실현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명성교회 불법세습 사태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과 처리의 실행이 없다면 교단헌법은 휴짓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기울어진 교단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없고,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5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실행위원장 방인성

(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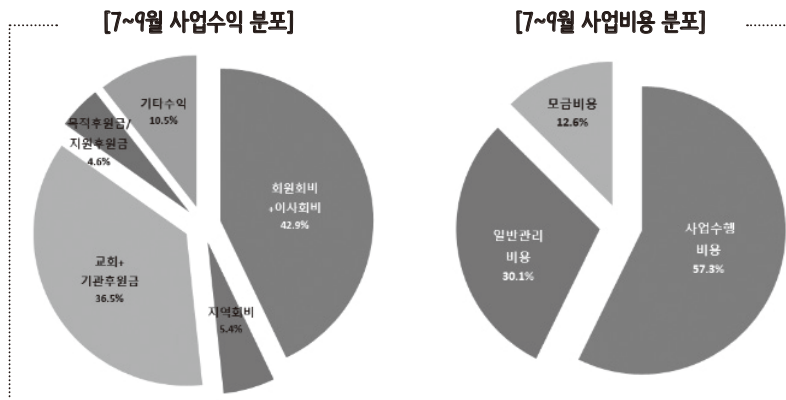
2020년 07월 01일부터 9월 30일 까지

과 목	공익목적사업	
<b>I. 사업수익 ㉔</b>		<b>69,213,209</b>
1. 회비수익 (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33,456,001	
2. 일반기부금수입 (교회/기관후원금)	25,260,000	
3. 특정기부금수익 (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3,200,000	
4. 기타수익 (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7,297,208	
<b>II. 사업비용 ㉕</b>		<b>73,377,102</b>
1. 사업수행비용 (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42,042,827	
2. 일반관리비용 (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22,110,455	
3. 모금비용 (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9,223,820	
<b>III. 사업외수익</b>		<b>1,089,700</b>
1. 노동부지원금	940,000	
2. 잡이익	149,700	
<b>IV. 사업외비용</b>		<b>0</b>
수익 총계		<b>70,302,909</b>
비용 총계		<b>73,377,102</b>
<b>당기 순자산의 증감</b>		<b>-3,074,193</b>

\* 기타수익에 청년재단-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금 6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순자산은 3,074,193원 감소했습니다.

\* 2020년 9월 30일 현재 잉여금은 69,995,936원입니다.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2020년 7월~9월 개인 후원자 명단

### 개인후원금 29,686,001 (597명)

강명길 강민봉 강병관 강석창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영안 강요셉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은 강진미 강진호 강채식 강철원 강철원 강춘근 강현주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승표 고은정 고재길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객상배 객종철 객창대 구예리 구희옥 권명희 권아현 권오재 권용태 권장희 권혁률 금은미 기세충 김강석 김경래 김경미 김경숙 김경천 김경호 김경희 김광환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대인 김대인 김동석 김동조 김동준 김두희 김명희 김만옥 김말순 김명은 김명찬 김명하 김문수 김미숙 김미혜 김만규 김민숙 김민아 김병일 김삼규 김상기 김상범 김상윤 김상은 김상인 김상정 김상환 김선옥 김선희 김성경 김성기 김성봉 김성수 김성숙 김성천 김성태 김세진 김수희 김승섭 김신곤 김신옥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아 김영철 김영철 김원진 김요열 김용미 김원섭 김은경 김은수 김은영 김은영 김은이 김인빈 김인선 김인숙 김재근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정은 김정원 김정현 김정형 김정훈 김종필 김중호 김주현 김준영 김준철 김준현 김지혜 김진석 김진표 김철성 김충환 김태식 김태환 김태훈 김학동 김학빈 김하나 김현경 김현아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형택 김혜경 김혜경 김홍섭 김홍환 김효진 김홍식 김희숙 김희완 김희정 나영식 나영진 나중주 남궁설 남성태 남재환 남제현 남준일 노광섭 노대웅 노승아 노치준 류선민 류은혜 류중우 맹경순 명호중 목광수 문경환 문규 문규영 문덕암 문석윤 문정옥 문형욱 민영은 박경천 박경중 박경희 박득훈 박명곤 박명규 박명배 박민선 박복애 박상돈 박상호 박서현 박성영 박선이 박성경 박성일 박세진 박수경 박수정 박수창 박양훈 박원주 박윤정 박은미 박은지 박은하 박익진 박인수 박재장 박재환 박정민 박정우 박정임 박제민 박재우 박중구 박중명 박종민 박종은 박종원 박종진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찬기 박철 박철원 박태영 박택규 박판근 박태영 박혜리 박혜윤 박호용 박홍래 박환승 방형애 배복희 배재수 배정은 배정주 배종석 배지수 배진화 백용진 백인남 백종국 백주영 백지열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도원 서동진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서임선 서한홍 서화진 서효정 석종호 설성호 성상현 성영은 성우경 손병철 손봉호 손상문 손영일 손용기 손은정 손진호 손현성 손현화 손화철 송명숙 송병문 송성현 송성호 송시섭 송연자 송인수 송준인 송철학 송태현 송택호 송형록 신국원 신대희 신명호 신선옥 신수현 신영현 신은심 신은정 신은정 신진수 신창주 신효영 신희선 안계영 안광찬 안보경 안선옥 안연희 안은수 안정은 안학서 양낙홍 양민우 양영두 양인봉 양지혜 양희현 엄용훈 엄현식 여동명 오동근 오동춘 오미영 오성만 오세란 오윤숙 오은석 오진선 오창섭 옥성일 온상원 왕보현 우창록 원영대 원종민 위국영 유건호 유동원 유상명 유성오 유영신 유영준 유원옥 유인복 유재근 유정윤 유정인 유지는 유창수 유해신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다혜 윤두선 윤민영 윤성우 윤신일 윤양숙 윤영석 윤태호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덕한 이동선 이동혁 이만동 이만열 이명자 이미진 이방욱 이병호 이병환 이상규 이상민 이상용 이상철 이석형 이선규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상근 이성진 이세령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아 이용운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근 이원애 이원영 이원우 이월숙 이윤정 이윤현 이은성 이은혜 이익용 이익현 이인택 이장규 이재만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은 이정화 이종규 이주현 이주환 이준복 이지옥 이진수 이천화 이철진 이충학 이태훈 이태휘 이태희 이하정 이하영 이희재 이희숙 이형조 이희석 이희열 익명후원자 임미정 임성빈 임소희 임영제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지웅 임진수 임태규 자정화 장기화 장동민 장미희 장민규 장서는 장영상 장옥선 장유희 장준혁 장창수 장해경 전갑용 전병국 전장덕 전종갑 전희숙 정경숙 정경애 정경희 정규장 정규훈 정금영 정대영 정동혁 정명구 정명혜 정명환 정문희 정민경 정병오 정선우 정세열 정영미 정왕호 정원 정우선 정유정 정유진 정유휘 정재훈 정중목 정철성 정현철 정혜자 정화선 정화조 조무성 조성돈 조성종 조세준 조승희 조옥현 조용환 조인형 조정미 조준호 조태래 조현 조현영 조흥식 주민선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상섭 지연식 진미자 차연주 차정아 채홍석 천고운 천무현 천선희 천수연 최규근 최경석 최경화 최규창 최동우 최병석 최병제 최상태 최성수 최성식 최영석 최영애 최우석 최용권 최원영 최윤선 최용 최인선 최인영 최정철 최정희 최종선 최종원 최지숙 최지영 최지혜 최진호 최현희 최혜경 최혜원 최혜원 추진연 추현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영호 하용정 하현주 한규안 한민근 한민순 한병선 한상호 한석환 한성준 한신영 한유식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한진영 한창희 허남 허성연 허태영 홍관수 홍대식 홍선희 홍인기 홍인중 홍일선 홍정진 홍종락 홍택주 황병구 황병일 황성영 황성걸 황영철 황재민



## 후원 기관 및 교회 (63곳)

교회 |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정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광고산울교회 광주다일교회 공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대림교회 덕수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목산침례교회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삼일교회 새사랑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명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성암교회 세신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림제일교회 오륜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뚝새들넉교회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청량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상교회 효성중앙교회 (54개)

기관 | (주)마임 (주)소프트이천 (주)카나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기윤실교사모임 대주산업 법률사무소우리 보성글로벌(주) 예인법률사무소 (9개)

## 신규/재개 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5명) 강정은 강채식 김준현 유상명 이상용

8월(8명) 강철원 김경희 김성수 박양훈 이영목 이태휘 정대영 정명구

9월(12명) 구희욱 김명하 김신욱 김은경 박경천 박인수 박해영 오윤숙 이동선 이선규 조성종 하영호

##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합하여 심습니다. (지역기윤실 회원님께서서는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형욱 간사 070-7019-3755, mjtwo@naver.com

[후원안내] 기윤실 운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정기후원, 증액신청하기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후원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윤실 후원계좌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 037-01-0504-979 하나 109-228746-00104

\*문의전화 02-794-6200, 070-7019-3755 (문형욱 간사)



## 기윤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 매년 개최되는 사단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회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6개월 이상 후원회원)
- ▶ 분기별 소식지(우편)와 뉴스레터(이메일)을 통해 기윤실 운동과 재정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활동보고(07/29~11/10)

- 07/31(토)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온라인)
- 07/31(토) 16:00 자발적불편운동-마스크 만들기 워크숍(기윤실 회의실)
- 08/04(목) 19:00 자발적불편운동-기획위원회 회의(온라인)
- 08/13(목) 14:00 <청년센터WAY>청년상담센터 워드WITH 운영위원회 회의(높은뜻광성교회)
- 08/14(토) 07:30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온라인)
- 08/20(목) 20:00 자발적불편운동-기획위원회 회의(온라인)
- 08/25(목) 10:30 성서한국-활동가TF(성서한국 회의실)
- 08/25(목) 16: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회 회의(속대인근)
- 08/25(목) 21:00 기독교윤리연구소-TF(온라인)
- 08/28(토)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온라인)
- 08/28(토) 19:00 성서한국-조직개편TF(온라인)
- 08/29(목) 11:00 <좋은나무>2주년기념강연: 한국교회 생존양식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가을 캠페인 "더불어 살아가는-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 09/03(목) 10: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포럼: 교단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
- 09/06(토) 20:00 성서한국-조직개편TF(온라인)
- 09/07(토) 19:30 <청년센터WAY>운영위원회 회의(온라인)
- 09/09(수) 20:30 재무상담지원사업 점검회의(온라인)
- 09/11(토) 07:30 제8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및 내부간담회(온라인)
- 09/12(목) 11:00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 과제는 무엇인가?(온라인)
- 09/15(목) 14:00 평신도의 상상력-기획회의(온라인)
- 09/17(목) 12:00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실행위원회 회의(서대문역 인근)
- 09/17(목) 17:00 <청년센터WAY>사람책방 기획회의(기윤실 회의실)
- 09/18(토) 14:00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준비모임(온라인)
- 09/20(토) 20:00 성서한국-조직개편TF(온라인)
- 09/21(토) 12:00 교회세습반대운동-예정통합105회기 총회 앞 기자회견(도림교회)
- 09/22(토) 11:00 에티컬엑스트라마일 1호 IR-제시키친(온라인)
- 09/23(수) 17:00 평신도의 상상력-기독교신학강좌 강사 미팅(온라인)
- 09/24(목) 20:00 기독교윤리연구소-TF(온라인)
- 09/25(토)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온라인)
- 09/25(토) 14:00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명성교회 법세습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통합총회관 앞)
- 09/25(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논평] 이것이 명성교회 돈과 권력의 힘이다
- 09/25(토) 20:00 <청년센터WAY>청년상담센터 워드WITH 운영위원회 회의(온라인)
- 10/05(토) 16:30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준비모임(온라인)
- 10/06(목) 19:00 [연대-긴급좌담회]전광훈 사태로 바라본 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
- 10/08(목) 10:00 성서한국-활동가TF(온라인)
- 10/08(목) 18:30 <청년센터WAY>사람책방 기획회의(삼각지역 인근)
- 10/12(토) 13:30 평신도의 상상력-기독교신학강좌 점검회의(온라인)
- 10/15(목) 10:10 장신대현장실천-1차 교육(온라인)
- 10/15(목) 20:00 <청년센터WAY>청년상담센터 워드WITH 운영위원회 회의(온라인)
- 10/16(토) 07:30 제 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및 내부간담회(온라인)
- 10/16(토) 14:00 자발적불편운동-제로웨이스트샵 소개영상 기획회의(일명상점)
- 10/16(토) 20:00 성서한국-조직개편TF(온라인)
- 10/20(목) 11:00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준비모임(록아워터 서대문점)
- 10/21(수) 12:00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피켓팅(형화대 분수 앞)
- 10/22(목) 10:00 장신대현장실천-2차 교육(온라인)
- 10/22(목) 20:00 기독교윤리연구소-TF(온라인)
- 10/23(토)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온라인)
- 10/23(토) 19:00 성서한국-조직개편TF(성서한국 회의실)
- 10/26(토) 19:00 성서한국-활동가워크숍(청어람홀)
- 10/29(목) 19:00 자발적불편운동-기획위원회 회의(서울역 인근)
- 10/29(목) 20:00 <청년센터WAY>운영위원회 회의(온라인)
- 10/30(토) 22:00 성서한국-조직개편TF(온라인)
- 10/31(토) 14:00 기윤실 사명과 운동-TF(기윤실 회의실)
- 11/04(수) 15: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회 회의(속대인근)
- 11/05(목) 19: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 회의(성서한국 회의실)
- 11/06(토) 20:00 <청년센터WAY>사람책방-월간책장 "요즘 청년의 버거니즘"
- 11/09(토) 11/14(토) 평신도의 상상력-기독교신학강좌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신학공부'(온라인)

●● 활동계획(11/11~11/30)

- 11/16(토)~12/13(일) 자발적불편운동 영상/수기 공모전
- 11/18(수) 14:00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출범 준비간담회(한국기독교회관 조애홀)
- 11/19(목) 20:00 <청년센터WAY>청년상담센터 워드WITH 원데이 클래스(온라인)
- 11/26(목) 20:00 <청년센터WAY>청년상담센터 워드WITH 운영위원회 회의(온라인)

전광훈 긴급 자담회(10/6)

글 최진호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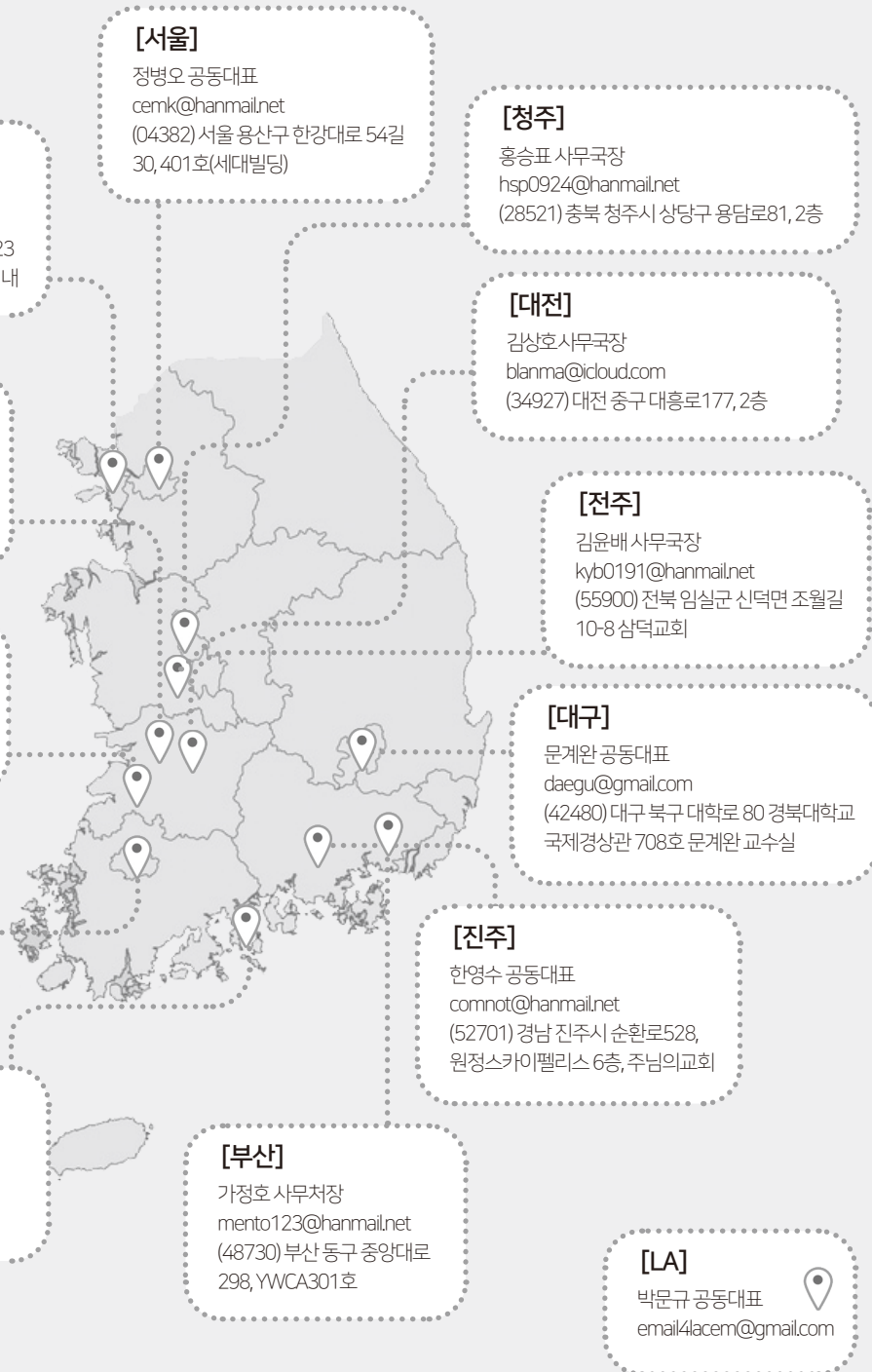
2019-2020년의 전광훈 사태는 한국사회 및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사건임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화) 저녁 7시에 온라인(뉴스앤조이/가kehr연대 유튜브)으로 전광훈 사태를 통하여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장동민 교수(백석대 역사신학, 기윤실 이사)의 발언이 기억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잣대 위에서 새롭게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시작되는 자리는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의 어느 강가일 것입니다." 전광훈 사태는 한국교회의 실패이고, 크나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발견을 내딛어 봅니다.

성서한국 집담회-활동가 인사이트(10/26)

글 최주리 간사



'무슨 일 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길고 긴 설명을 덧붙여 설명하고, '활동가/운동가란 과연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품고 있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저녁, 청어람홀에서 열린 '성서한국 집담회-활동가 인사이트'에 다녀왔는데요. 성서한국 회원단체 및 협력단체의 1~4년차 기독교활동가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활동가로서 나는 누구인지, 활동가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동료와 조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각 단체와 활동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약자를 돌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greatc@hanmail.net  
(21653)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  
번길 35 칼리오페 719 담쟁이숲 내

**[서울]**

정병오 공동대표  
cemk@hanmail.net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401호(세대빌딩)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hsp0924@hanmail.net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iksancemk@naver.com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대전]**

김상호 사무국장  
blanma@icloud.com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kyb0191@hanmail.net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  
10-8 삼덕교회

**[정읍]**

정종인 실행위원장  
cibank64@hanmail.net  
(56194) 전북 정읍시 충정로30 3층

**[대구]**

문계완 공동대표  
daegu@gmail.com  
(42480) 대구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708호 문계완 교수실

**[광주]**

고경태 운영위원  
ktyhbg@hanmail.net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comnot@hanmail.net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123kslee@hanmail.net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mento123@hanmail.net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  
298, YWCA301호

**[LA]**

박문규 공동대표  
email4acem@gmail.com

# “이 시대의 가장 활발한 종교는 무종교다!”



오강남 교수 추천 /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의 책  
뉴욕타임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추천

“종교 없는 삶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망하는  
획기적인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의 책(2014) 선정 이유

“종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인문학적 지침서!”  
— 《뉴욕 타임스》

“한국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종교 없이  
사는 삶이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훌륭하게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강남 교수

필 주커먼 | 박윤정 옮김

“종교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적, 도덕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요.  
종교의 중요한 특징은 연구가 충분히 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의 비종교적인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지요.  
종교적인 사람들만 연구하고 무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시한다면, 스펙트럼 전체를,  
그림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중

우리 마음속 이상향 판미동

(주)민음인의 브랜드 판미동은 몸과 마음의 행복, 대안적 삶에 대한 책을 펴냅니다.

(주)민음인은 민음사 출판그룹의 차회사입니다.

판미동 블로그 [www.panmidong.com](http://www.panmidong.com) /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nmidong](http://www.facebook.com/Panmidong) / 민음사 출판 그룹 홈페이지 [www.minumsa.com](http://www.minumsa.com)

판미동